

철길 위로 흠날리는 아름다운 이팝나무꽃

전주시, 25~26일·5월 1~3일 총 5일간 '전주이팝나무 축제' 개최... 개화 시기 맞춰 팔복동 철길 개방

매년 봄 새하얀 이팝나무꽃이 아름답게 흠날리는 전주시 팔복동 철길이 봄꽃 개화 시기에 맞춰 시민과 관광객에게 개방된다.

전주시는 오는 25일~26일, 5월 1일~3일 등 총 5일간 팔복예술공장 일원에서 '2026 전주이팝나무 축제'를 개최한다.

해마다 봄이 되면 전주시 팔복동 산업단지 내 무채색 공장 지대를 가로지르는 넓은 철길 위로 하얀 이팝나무 꽃송이가 쏟아지며 도심 속 숨겨진 꽃터널이 완성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와의 협약을 바탕으로 평소 출입이 제한된 북전주선 철길을 이팝나무 개화 시기에 맞춰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방 구간은 기린대로~신북로 630m 구간과 기린대로~팔복로 670m 구간으로, 5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특히 팔복예술공장 주변 금학교~신북로 약 400m 구간은 오후 9시까지 야간 개방도 예정돼 있어, 화사한 조명이 더해 더욱 몽환적인 이팝나무 야경을 즐길 수 있다.

또한 현장에는 지역 기업과 단체가 참여하는 음식·체험·판매 부스 30여개가 운영되며, 버스킹 등 다채로운 공연도 펼쳐진다. 공식 개막식은 오는 5월 1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이와 함께 축제 기간 팔복예술공장에서는 마르크 샤갈 특별전이 진행되고, 개방시기가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일정과 맞물려 있어 철길 산책부대 수준 높은 전시·영화 관람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다.

이에 앞서 전주이팝나무축제는 지난

2024년과 지난해 총 2회에 걸쳐 약 10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모으며 전주를 대표하는 봄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산단 입주 기업들은 올해도 공장부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제공하며 상생의 마음을 더했다.

시는 철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길을 축제 기간 및 지정 개방 시간에 한해 출입을 허용한다. 개방 시간 외 태료가 부가될 수 있으며, 축제 기간 외에는 강력한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전통문화자산 활용 K-콘텐츠 전략

전주시정연구원, 전주형 K-콘텐츠 가치사슬 구축 등 제시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 이하 연구원)은 전주의 전통문화자산을 데이터화·IP화·실증·유통으로 연결하는 전략을 제시한 정책브리프 제16호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전주의 전통문화자산을 활용한 K-콘텐츠 산업화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한 이번 정책브리프에서 연구원은 전주가 보유한 한옥마을과 판소리, 완판본, 한지, 마시, 전무단출입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축제 기간 외에는 강력한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체합하는 인터랙티브 도시 조성의 4대 전략을 제안했다.

특히 연구원은 전주형 전략이 문화행사의 확대가 아니라, 원형자산 데이터화에서 IP 기획·제작, 실증·고도화, 거래·유통, 도시형 체험 확산, 성과 환류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데 정책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행체계 측면에서는 문화·관광·산업·디지털 부서를 조정하는 전담 PMO와 권리·윤리 협의체, 민관 파트너십 협의체를 포함한 다층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재원은 시비, 국비·공모, 민간 매칭, 수익 환류를 결합한 단계별 투자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과관리 측면에서는 원형 DB 구축, 권리장리 완료, 견수, IP 바인딩, 라이선싱·공동제작 견수, 도시브랜드 효과, 시민 참여 등을 포함한 다층적 성과지표 체계를 마련하고, 기반 구축기, 시범운영기, 확산·고도화기의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연구원은 전통문화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충돌과 전통 왜곡, 이벤트화, 인력 유출, 플랫폼 종속 등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표준 계약, AI 활용 윤리·저작권 지침, 품질인증, 시민 평가, 성과 환류 체계 등 제도적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희성 기자

기후변화 위기 속 한국 전통정원 현대적 재해석

전주시, 전주정원산업박람회 핵심 프로그램 '코리아가든쇼' 조성 추진

전주시는 '2026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의 핵심 프로그램인 '코리아가든쇼'를 덕진공원 일원에 조성해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한국정원의 새로운 가치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국립정원문화원과 전주시가 공동 주관하는 코리아가든쇼는 '기후재난 시

대·회복의 한국정원'을 주제로, 한국 전통정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정원 작품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전통정원의 미학과 생태적 가치를 오늘의 감각으로 풀어내며, 한국 정원문화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25일까지 진

행된 정원 디자인 작품공모를 거쳐 지난 4월 1일 5개 작품을 최종 선정해 정원 조성에 착수했다. 이들 5개 정원은 오는 29일까지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조성된 작품은 전주정원산업박람회 기간 방문객들에게 공개돼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정원의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게 된다.

특히, 이번 코리아가든쇼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기후위기 시대에 정원이 지닌 회복력과 공공적 가치를 함께 전달하는 상징적인 프로그램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는 앞으로 정원해설 등을 통해 정원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공모된 정원전시를 기반으로 한 정원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2026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를 통해 덕진공원 일원에 서울 우호정원 1개소와 기업정원 4개소, 코리아가든쇼 5개소 등 총 10개의 정원을 조성하게 된다.

/권희성 기자



원진알미늄은 8일, '전주함께라면' 사업에 사용돼 달라며 라면 50박스를 후원했다.

원진알미늄, '전주함께라면' 후원 동참

(주)원진알미늄(대표 원태연)은 8일, 1인 가구 등 고립·은둔가구 발굴 지원을 위한 '전주함께라면' 사업에 사용해 달라며 전주시에 라면 50박스를 후원했다.

(주)원진알미늄은 지난해 추석 라면 100박스를 후원한 데 이어 이번에도 안주군 복합문화공간 '산속등대' (대표 원태연)를 통해 자체 개발한 라면 50

박스(250만 원 상당)를 전주시에 기부하며 '전주함께라면' 사업에 힘을 보탰다.

원태연 대표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전주시와 협력해 고립·은둔가구 발굴과 취약계층 지원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는 8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신규공무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전주시, 신규공무원 맞춤형 교육 실시

전주시는 8일부터 오는 10일까지 3일간 전주시 에너지센터와 시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신규공무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 가치 확립과 행정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공무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신규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공직 초입 단계에서 필요한 기본 소양과 직무 지식

균형 있게 제공하는 시 자체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과정은 △공직 가치 △직무 △소양 △전산 실습 △현장학습의 5개 분야, 12개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전문 강사진을 초빙한 외부 강의와 전주시 주요부서 팀장의 실무 지식 전달 강의로 전문성과 현장성을 모두 구현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전주시는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완화하고, 출산·양육 진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1월 21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8세부터 39세 이하 청년이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전주시에 출생신고를 완료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본인이 출산한 경우 출산

급여 90만 원,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지원금 8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특히, 여성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소득 활동이 확인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소득 활동은 제외되며, 부부가 각각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지원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전주시 누리집 '통합지원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권희성 기자